權春蘭의 『進學圖』에 관한 硏究*

A Study on Kwon Chunran's *Jinhak-Do*

宋 日 基 (Song Il-Gie)**
盧 基 春 (Roh Ki-Chun)***

◁ 목 차 ▷

1. 緖 論
2. 著者의 生涯
3. 編纂 動機 및 刊行 背景
 3.1 編纂 動機
 3.2 刊行 背景
4. 「進學圖」의 編成 體制 및 內容 分析
 4.1 編成 體系
 4.2 內容 分析
5. 結 論
<참고문헌>

<초 록>

넓고 넓은 학문적 축적을 압축적으로 집약시키는 '圖'의 형식은 가장 간명한 형식으로 번쇄한 이론의 핵심을 제시하고 그 근원적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서 한국유학사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다. 『進學圖』는 宣祖代의 文臣이자 학자인 權春蘭(1539~1617)이 초학자들의 학문을 돕기 위해 만년에 자신의 원숙한 학문을 26개의 圖와 圖說로 집약시켜 놓은 대표작이다. 이 책은 우주의 생성 원리로부터 性·氣·心·情 등의 인간의 심성, 그리고 학문을 하는데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좌우명, 四書 및 五經에 수록된 성현들의 중요한 교훈,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편성 체제는 宇宙論 → 人間心性論 → 工夫先後論 → 聖人敎訓論 → 其他論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첫 편에 <第一 太極通體人事圖>를 배치한 것은 南宋의 周熹와 呂祖謙이 공동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인 『近思錄』과 退溪의 『聖學十圖』에서 <太極圖>를 첫머리에 두는 학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要語: 권춘란, 이황, 진학도, 성학십도, 유교도상

---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2-H00001).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전임연구원(rohide@hanmail.net)

접수일: 2010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10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16일

www.kci.go.kr

<ABSTRACT>

The form of diagram(圖) and explanatory diagram(圖說) which compactly integrates a wide range of academic accumulation has been regarded as important for a way of presenting simply and clearly the point of complicated theory and of revealing its fundamental meaning. *Jinhak-do* is the major work which Kwon Chunran(1539~1617) integrated his own scholarly understandings into 26 diagrams and explanatory diagrams to help the beginners in his later years. This book deals with human's nature of 性・氣・心・情 from the principle of formation of the universe, the mind and motto that one should have to engage in studies, the important lessons of sages contained in the Four Books(四書) and Five Classics(五經), and the context of establishing the order of Neo-Confucianism in a country village. It is structured in the order of 宇宙論 → 人間心性論 → 工夫先後論 → 聖人敎訓論 → 其他論. Especially, since it completely follows the academic tradition of placing <太極圖> at the opening of *Kunsarok*(近思錄) compiled by Ju Hie(周熹) and Yeo Jogyum(呂祖謙) and *Sunghak Sib-do* by Yi Hwang,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is placed at the opening.

Key words: Kwon Chunran, Yi Hwang, *Jinhak-do*, *Sunghak Sib-do*, Confucian diagram

www.kci.go.kr

1. 緖 論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제작한 圖의 수는 적어도 5000개를 넘는다고 한다.[1] 이와 같이 넓고 넓은 학문적 축적을 압축적으로 집약시키는 '圖'의 형식은 가장 간명한 형식으로 번쇄한 이론의 핵심을 제시하고 그 근원적 의미를 밝히는 방법으로서 한국유학사에서 매우 중시되어 왔다. 이러한 '圖' 중시의 학풍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退溪 李滉의 『聖學十圖』는 本體論·爲學論·心性論·修養論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道學의 전체 규모를 10개의 '圖'와 '說'로 구성하여 가장 압축적으로 집약시켜 놓아, 그 영향 아래 새로운 '圖'들이 숱하게 제시되었다.[2]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進學圖』는 宣祖代의 文臣이자 평생토록 학문에 진력한 학자인 晦谷 權春蘭(1539~1617)이 초학자들의 학문을 돕기 위하여 만년에 자신의 원숙한 학문을 26개의 圖와 圖說로 집약시킨 대표작이다. 그러나 이 책은 權春蘭이 세상을 떠난 지 160여 년이 지난 1778년에야 비로소 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또한 최근 그의 생애와 학문적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고 외에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수록된 기록을 중심으로 權春蘭의 生涯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權春蘭이 『進學圖』를 편찬한 동기와 1778년 목판본으로 출판되기까지의 간행 배경을 밝혀보며, 마지막으로 4권 4책으로 간행된 『進學圖』의 서지적 특징 및 전체적인 편성 체제, 그리고 26개 圖의 내용과 圖像者, 圖說者,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할 때 참고하였던 문헌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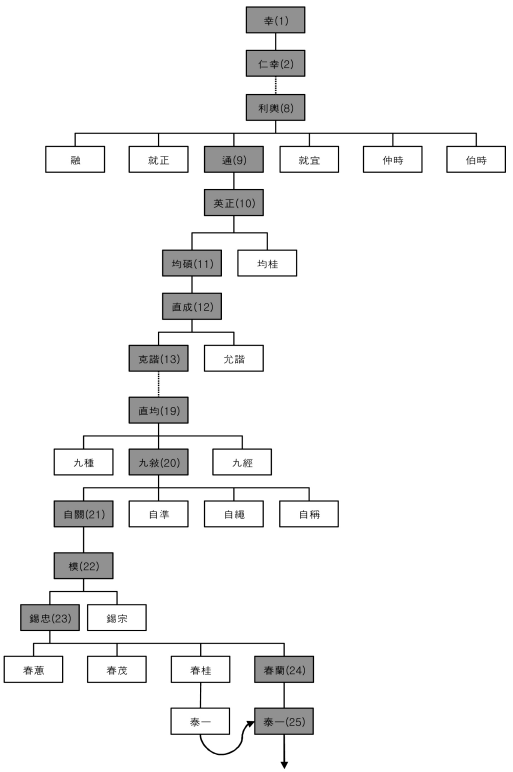
---

1) 유권종, "『입학도설』과 조선유학도설," 『철학연구』 제21집(2007. 5), 7.
2)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3-6.
3) 유권종,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학문," 『철학탐구』 제26집(2009. 12). 1-33.

www.kci.go.kr

2. 著者의 生涯

이 책의 저자 權春蘭은 高麗 太祖 때의 功臣인 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太師 權幸의 24世孫으로 자는 彦晦, 호는 晦谷, 본관은 安東[4]이다. 그의 가계를 그림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權春蘭의 世系圖[5]

4) 安東 權씨는 원래 본성이 '金'씨로 大輔公 金閼智의 후손인 新羅의 宗姓이었으나, 高麗 太祖 때의 功臣인 金幸에게 '權'씨의 姓을 하사 하면서부터 安東을 본관으로 두게 되었다.
5) 『晦谷先生文集』에 수록된 <晦谷先生世系圖>를 정리한 것임(『晦谷先生文集』, 2冊, <晦谷生世系圖>, 1-2張).

www.kci.go.kr

앞의 세계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高祖는 副司直을 지낸 九叙이며, 曾祖는 九叙의 4子 가운데 4男인 秉節校尉 自關, 祖考는 軍器寺主簿를 지내고 후에 通訓大夫에 추증된 模이다. 父는 模의 次子로 承政院承旨兼經筵參贊官을 역임하고 通政大夫에 추증된 錫忠이며, 母는 淑夫人 咸昌金氏로 1539년 7월 22일 安東府 東佳丘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向學에 뜻을 두고 각골 면려하여 성현의 유훈을 배우고 구한 것은 반드시 힘써 실천하여 단지 입과 귀로 말하거나 듣는 데 그치지 않았는데, 14세 되던 해인 1552년에는 문신이며 학자인 栢潭 具鳳齡(1526-1586)에게 나아가 立雪之人의 예를 다하여 수학하였고, 이후에는 退溪에게 나아가 더 배우기를 청하여 퇴계의 문인이 되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는 것도 즐겨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어버이를 위해 뜻을 굽힌 선생은 1561년(23세) 司馬試를 거쳐, 1573년(35세) 式年文科에 乙科로 급제한 후, 1575년 成均館學諭, 1576년 成均館學祿, 1580년 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 1581년 藝文館待敎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벼슬에 뜻이 없는 선생은 1582년 이후부터는 일부 外職을 제외하고는 內職에는 거의 나아가지 않았다. 즉, 1582년 藝文館奉敎, 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지만 病으로 사직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1583년 7월 잠시 大同道察訪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1584년 司諫院正言, 司憲府持平, 成均館直講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病辭 下鄕하였고, 1585년에는 禮曹正郎에 제수 되었지만 外職을 빌어 永川 郡守가 되기도 하였다.

1587년 12월 부친인 承旨公이 卒하자 廬墓가 끝난 1590년부터 成均館直講·司諫院獻納에 차례로 제수되었으나 모두 病辭 不就하였다. 同年 11월 義城縣令兼春秋館記注官이 되어 모친을 위해 外職인 義城縣令으로 있다가 1591년 心病이 점차 중하여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1595년부터 1598년까지 司憲府掌令, 世子侍講院弼善, 司憲府執義, 世子侍講院輔德, 成均館司成 등에 제수되었지만 모두 病辭하고 不就하였다.

1601년 3월 모친을 위해 다시 靑松府使로 부임하였지만 7월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의 廬墓를 끝낸 후부터는 벼슬에 더욱 더 뜻을 두지 않았던바, 1605년 선조

www.kci.go.kr

가 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으로 불렀지만 모두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고, 1606년에는 다시 世子侍講院輔德에 배수되었지만 또한 병으로 사직하였다. 70세가 되던 해인 1608년 榮川郡守에 제수되었으나 年老하여 나아가지 않았고, 1610년 12월에는 弘文館敎理로 徵召하여도 병으로 사직하였다.[6]

이와 같이 선생은 1603년 모친을 去喪한 이후 벼슬에 뜻을 끊고 그가 지은 鑑源亭[7]에 거처하면서 학문에만 전념하여[8] 六經과 四書로부터 九流와 百家의 서적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아니한 것이 드물었다[9]고 한다.

부인은 江陵府使 朴承侃의 딸인 錦城 朴氏로 부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아우인 春桂의 아들 泰一을 계자로 삼았으며, 1617년 8월 16일 향년 79세로 鑑源精舍에서 졸하였다. 死後 여러 선비들이 모의하여 栢潭 具鳳齡을 모신 栢潭書院에 配享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權春蘭의 주요 활동기는 3期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1539년 태어나 1573년 式年文科에 급제할 때까지 栢潭 具鳳齡과 退溪 李滉을 스승으로 삼아 修學에 열중한 시기, 제2기는 1575년 成均館學諭로부터 관직을 시작하여 1603년 모친을 거상할 때까지 致仕를 거듭하며 內職과 外職을 번갈아하던 仕宦 시기, 제3기는 3년간의 廬墓를 끝낸 후 1605년부터 1617년 卒할 때까지 그가 세운 鑑源亭에 거처하면서 六經과 四書, 九流百家에 이르기까지 학문에 전념하면서 『進學圖』 등의 서적을 편찬한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

6) 이상의 내용은 『晦谷先生文集』 <晦谷先生家狀>을 요약, 정리한 것임.(『晦谷先生文集』, 2冊, 附 <晦谷先生家狀>, 1-15張).

7) 鑑源亭은 1561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 그가 거주하는 洞口의 개울과 바위가 아름다운 곳에 정사 여러 칸을 짓고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주자의 <觀書有感二首>라는 시로부터 '半畝方塘一鑑開', '爲有源頭活水來'라는 구절을 취하여 정자 앞에다 '鑑源'이라는 편액을 걸었다.(『晦谷先生文集』, 2冊, 附 <晦谷先生家狀>, 3張(右8-10行).

8) 『晦谷先生文集』, 2冊, 附 <晦谷先生家狀>, 8張(左1-2行). "癸卯秋去喪不樂仕之意益堅恒處鑑源亭爲終身之計."

9) 『晦谷先生文集』, 2冊, 附 <晦谷先生家狀>, 16張(左7-8行). "先生潛心墳典自六經四子以至九流百家之書鮮所不窺."

10) 유권종 교수는 權春蘭의 생애를 ① 소년시절 학문을 처음 시작하면서 환로에 들기 전까지의 시기를 修學時期, ② 사환을 시작하여 접을 때까지의 시기를 仕宦期, ③ 사환을 그만둔 후 저술을 내고 다른 선비들과 교유하는 시기를 學問 硏鑽과 著述의 時期 등 3期로

www.kci.go.kr

3. 編纂 動機 및 刊行 背景

3.1 編纂 動機

「進學圖」의 편찬 동기와 간행 배경에 관해서는 權春蘭이 직접 서술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外孫[11]인 安復駿(1698-1777)이 1776년에 쓴 「進學圖」의 <序文>과 權春蘭의 5代孫 權國觀(1711-1797)이 1778년에 쓴 「進學圖」의 <跋文>에 이 책의 편찬 동기와 간행 배경에 관련된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安復駿의 <序文>을 살펴보면,

> "퇴계 이황과 도암 이재의 유집에는 성학십도가 있으니, 모두 성도의 연원을 밝혀 후학들이 계개하는 데 좋은 방법인 바로, 무릇 우리나라 유학자들 중에 누가 능히 그것을 이었는가? 이제 회곡선생이 찬술한 진학도는 퇴계선생 이후에 처음 보이는 것이다. 진학도는 26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학자들이 도를 깨우치는 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고이신 판서공이 항상 모든 조항을 판각하여 선현을 표장하는 계책을 삼으려고 하였지만, 미처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였다"[12]

그리고 權國觀이 쓴 <跋文>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 "모름지기 진학도와 공문언인록 등의 책은 상자각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로 선조께서 학문을 하시고 여력으로 손수 찬술하여 완성한 것으로, 몽매한 후학들이 계급차제를 닦아 나아가게 한 것이다."[13]

구분하였다(유권종,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학문," 「철학탐구」 제26집(2009. 12). 3-4).

11) 「進學圖」 <晦谷先生進學圖序> 卷1, 1張(左8行). "晦谷先生卽我高祖妣之祖考."

12) 「進學圖」 <晦谷先生進學圖序> 卷1, 1張(右2-8行). "竊伏琓退陶老先生遺集中有聖學十圖皆所以明聖道之淵源爲後學繼開之良方也凡在吾東儒賢孰有能續之者而今玆晦谷先生所撰進學圖實退翁後初見也圖凡二十六而於初學牖蒙之道甚可裨益故吾先考贈判書公恒欲某條剞劂爲表章先賢之計未及遂而棄."

13) 「進學圖」 卷4末. "惟進學圖及孔門言仁錄等帙保留篋笥中此實先祖學問餘力手自撰成以昧後學進修階級次第者也."

www.kci.go.kr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의 <序文>에 언급된 「聖學十圖」[14]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조선의 제14대 왕에 오른 宣祖를 聖王으로 이끌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 退溪 李滉(1501-1570)이 성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10개의 그림으로 요약·정리하여 올린 것으로, 宣祖 뿐만 아니라, 성리학을 배우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도 아주 귀중한 책이다. 그러므로 晦谷先生이 「進學圖」를 편찬한 동기 역시 退溪의 門人으로서 退溪의 「聖學十圖」를 저술한 정신을 이어 받아, 초학자들이 학문의 도를 깨우치고, 몽매한 후학들이 계급 차제를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26개의 圖와 圖說로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

3.2 刊行 背景

그러면 晦谷의 「進學圖」는 언제 간행되었는가? 간행 과정에 대해 安復駿의 <序文>을 살펴보면,

> "진학도는 이미 권축이 완성되었지만, (공문)언인록은 편차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졸하였다"[15]
> "진학도는 26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학자들이 도를 깨우치는 데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고이신 판서공이 하나 하나의 항목들을 판각하여 선현을 표장하는 계책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였다"[16]

그리고 權國觀이 쓴 <跋文>에는

> "마땅히 판각하여 널리 알려야 하지만 힘이 부족하여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성하지 못했으니, 어찌 후손들의 험 잡힐 일이 아니겠는가?"[17]

---

14) 「退溪文集」중 內集 第七卷 <箚>와 「退溪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원명은 <進聖學十圖箚幷圖>이며, 進, 箚, 幷圖의 글자를 생략하여 <聖學十圖>로 명명되고 있다.
15) 韓國文集編纂委員會編(1995), 297. "進學圖則已成卷軸而言仁錄則未及編次而卒."
16) 「進學圖」 <晦谷先生進學圖序> 卷1, 1張(右7-8行). "吾先考贈判書公恒欲某條剞劂爲表章先賢之計未及遂而棄."
17) 「進學圖」 <卷4末>. "宜乎錄梓廣傳而擧嬴力詘至今歷百年未遂豈非斯文之欠事耶."

www.kci.go.kr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進學圖』는 晦谷의 생존 시에 編次는 물론 본문의 내용이 거의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617년 晦谷이 卒하자 아우인 判書公 春桂가 『進學圖』를 판각하여 晦谷의 학문을 널리 알리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春桂 또한 1620년 卒하여 간행사업은 중지되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간행사업은 100여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재개되는데, 安復駿의 <序文>에는

> "후손인 소자가 선고의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중년 이후부터는 필히 마음을 다해 체제를 갖추어 간행할 것을 기약하고, 미호 김제주공과 왕복하면서 서로 상의하고 교정하여 완질을 흡족하게 완성한 연후, 서문을 청하여 영원히 선현의 광요를 입기 바랐는데, 서문을 받지 못한 채 김공 또한 서거하였으며, 아울러 가세가 기울어 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년에 이르러 이에 비로소 간행 작업을 시작하였다"[18]

그리고 權國觀의 <跋文>에는

> "근자에 안택헌 지의금공이 이 책의 간행을 위해 몇 년 동안 진학도 1질을 미호 김공(김원형)에게 왕복하면서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니 … 이에 번잡한 부분을 수정하고, 간략히 하여 4책으로 나누고, 원집 2권은 또한 교정하여, 병신년 봄에 비로소 간행을 시작하였는데, 안상사 명술과 재종제 점래가 실제로 그 작업을 주관하였다 … 재력은 다시 모았으나 택헌공은 이미 돌아 가셨으니 …"[19]

라고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進學圖』의 校刊은 權春蘭의 外孫인 知中樞府事 安復駿이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평소에 선고의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중년 이후부터는 이 책의 체제를 갖추어 간행할

---

18) 『進學圖』 <晦谷先生進學圖序> 卷1, 1張(左1-5行). "世小子不勝感慨自中年以後必思竭心經紀期於刊行往復于渼湖金祭酒公相議校整恰成完帙然後仍請弁卷文字永裨先賢之光耀未及受而金公又逝兼以物用凋殘入刊未易至今年乃始役焉."

19) 『進學圖』 卷4末. "迺者安擇軒知義禁公爲此經紀積有年所以進學一帙往復質疑于渼湖金公金公歎其問目所見之高明於是乎删繁就簡分爲四册而原集二卷因又校整始役于丙申春安上舍明述再從弟漸來實主之也 … 財力之復聚而擇軒公已下世."

www.kci.go.kr

것을 기약하고, 渼湖 金元行[20]에게 몇 년 동안 왕복하면서 『進學圖』 草稿本을 산정하여 4冊으로 완성하였다. 4冊의 『進學圖』를 완성한 후, 간행을 위하여 金元行에게 다시 序文을 요청하였지만, 序文은 받지 못한 채 1772년 金元行이 卒하였다. 5년이 지난 1776년 知中樞府事로 재임 시에 安復駿 본인이 직접 『進學圖』 序文을 완성하고, 安明述과 再從弟 權漸來가 실제로 간행사업을 시작하였지만, 安復駿 또한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777년 타계하자, 權春蘭의 5代孫 權國觀이 1778년 跋文을 쓰고 『進學圖』의 간행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權春蘭이 『進學圖』를 편찬한 동기는 退溪의 門人으로서 退溪의 『聖學十圖』를 저술한 정신을 이어 받아, 초학자들이 학문의 도를 깨우치고, 몽매한 후학들이 계급 차제를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26개의 圖와 圖說로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進學圖』의 간행 배경은 權春蘭 死後에 아우인 權春桂가 판각하여 晦谷의 학문을 널리 알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春桂가 1620년 타계하자 간행 사업은 중지되었다. 본격적인 간행 사업은 100여년이 지난 후, 權春蘭의 外孫인 安復駿이 주도하여 간행 사업을 재개하게 되는데, 먼저,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進學圖』 草稿本을 金元行(1702-1772)이 산정하여 4冊으로 완성하였다. 다시 金元行에게 『進學圖』의 <序文>을 요청하였으나, 1772년 金元行이 卒하자 1776년 知中樞府事 安復駿이 직접 <序文>을 완성하고, 安明述과 權漸來가 실제로 간행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安復駿 또한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777년 타계하자, 權春蘭의 5代孫 權國觀이 1778년 <跋文>을 써서 『進學圖』의 간행을 완료하였다.

4. 『進學圖』의 編成 體制 및 內容 分析

앞장에서 『進學圖』의 편찬 동기 및 간행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책은

20) 金昌協(1651-1708)의 孫子이자 陶庵 李縡(1680-1746)의 門人이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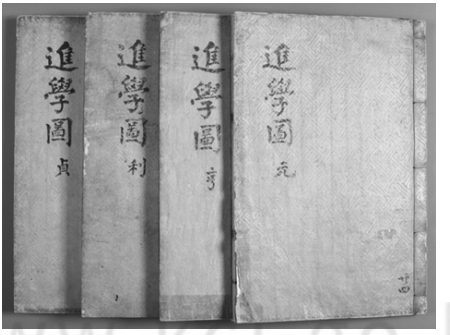
일반적인 문집과는 편성체제 및 내용이 상이한 방식으로 편찬 간행되었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1778년에 간행된 『進學圖』의 편성 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編成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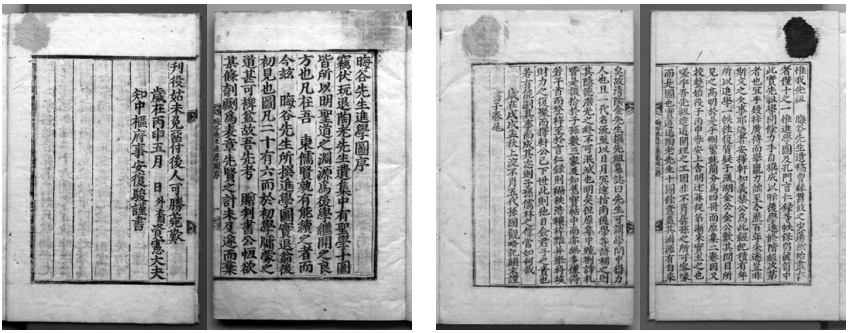
이 책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권춘란의 5대손인 권국관에 의해 1778년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먼저 목판본 『진학도』의 형태적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進學圖의 形態事項>

晦谷先生進學圖/ [權春蘭 撰]. - 木板本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778年 跋
4卷4册 : 圖, 四周雙邊 半郭 21.1×14.7 cm,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0.1×20.3 cm.
表題: 進學圖
序題: 晦谷先生進學圖
版心題: 晦谷先生進學圖
序: 歲在丙申(1776)五月 日外裔資憲大夫知中樞府事安復駿謹書
[跋]: 世在戊戌孟秋上浣不肖五代孫國觀略記顚末謹書于卷尾
藏書印: 鶴棲家藏(墨印)



www.kci.go.kr



<사진 1>「進學圖」(전4책)과 序文 및 跋文

전체 4卷 4冊(元・亨・利・貞)의 木板本인『進學圖』는 1776년 安復駿이 쓴 <序文>, <總目>, <各冊 目錄>, <本文>, 1778년 棬國觀이 쓴 <跋文>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록된 서명을 보면, 表題는 '進學圖'이고, 序題와 版心題, 그리고 卷尾題(卷末題)는 모두 '晦谷先生進學圖'로 표기되어 있으며, 古書의 目錄 기입에 가장 중요시되는 卷首題가 누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完全書名은 表題, 序題, 版心題, 卷尾題 등에 수록된 '晦谷先生進學圖'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安復駿의 <序文>과 權國觀의 <跋文>에 모두 '進學圖'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略書名은 '進學圖'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21]

그러면 卷首題가 없는 이 책의 卷次 표시는 어디에 두었을까? 대부분의 고서에 있어서 卷次의 표시는 목록 기입에 가장 중요시되는 卷首題에 두는 것인 일반적인 사항인데, 4卷 4冊인 '晦谷先生進學圖'는 각 冊의 版心題와 卷尾題에 '晦谷先生進學圖卷之一'와 같이 卷次를 표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卷4(貞冊)의 卷末 다음에 수록된 <跋文>은 본 논고에서 임의로 명칭을 부여하였는 바, <跋文>이 수록된 張의 版心에는 '晦谷先生文集卷之二終'이라는 版心題와 함께 '1778년 음력 칠월 상순에 5대손 권국관이 간행의 전말을 권미에 적는다'[22]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혹시『晦谷先生文集』에 수록된 내용을『進學圖』에

21)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은 '晦谷先生進學圖'로 표기하고 있음.
22) "世在戊戌孟秋上浣不肖五代孫國觀略記顚末謹書于卷尾."

www.kci.go.kr

그대로 전재하였는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晦谷先生文集』[23] 2책 가운데 첫 번째 책에 수록된 卷2와 대조해 본 결과, 文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勸國觀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는 張의 版心에 수록된 '晦谷先生文集卷之二終'은 誤記로 보이며, <跋文>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4.2 內容 分析

총 26개의 圖와 圖說로 이루어진 『進學圖』의 <本文>은 先圖後說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즉 복잡한 이론을 간명하게 圖象化한 '圖', 圖의 내용을 다룬 '圖說', 圖說을 부연 설명한 '所引', 權春蘭이 다른 학자들의 학설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붙인 '附說' 등이다.[24] 본 장에서는 26개의 圖와 圖說, 所引, 附說로 이루어진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태극이 천하 사물의 근저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사람의 태극이 됨을 설명한 것[25]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 <第一 太極圖>를 기본으로 權春蘭이 재편한 것이며, 圖說 또한 <第一 太極圖>의 圖說을 ① 太極化生萬物之本 ② 人得太極之理而最靈於物 ③ 聖人全太極之道而無所虧 ④ 君子小人於是有善惡之分 등 4篇으로 대별하여 추출된 원문을 싣고, 각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는데, 원래 <太極圖>와 <太極圖說>[26]은 濂溪 周敦頤이가 지은 것이다. 所引은 朱子의 설을 인용하여 圖說을 부연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權春蘭이 자신의 견해를 붙인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

2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동곡古3648-07-70-1).

24) '所引' '附說' 등의 용어는 금장태 교수의 用例를 채택하였다.[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7].

25) 『進學圖』 卷1, 4張(左2-4행). "此言太極爲天下事物之根柢而無不通體焉唯聖人能得是理之全而首出則是乃爲人之太極也."

26) <太極圖>와 <太極圖說>은 『性理大全』 1卷의 <太極圖>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www.kci.go.kr

2) 第二 論性理氣圖

性에는 天地의 性과 氣質의 性이 있지만 그 근본은 같음을 설명한 것[27]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圖說을 기본으로 權春蘭이 도상화한 것이며, 圖說은 ① 論性之有天地氣質之辨 ② 言諸子論性之不同 등 2篇으로 대별하여 ① 篇은 性과 氣에 관한 朱子・勉齋 黃氏・張子・程子 등의 설을 인용하였고, ② 篇은 '孟子言性善', '荀子言性惡', '楊子言性善惡混', '韓子言性有三品'과 같이 4명의 주창한 學說의 이름만 간단히 나열하였다. 所引은 勉齋 黃氏・程子의 설을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性과 氣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편성되어 있다.

3) 第三 心統性情之圖

마음은 몸의 主가 되며 아울러 性과 情을 통제함을 말한 것[28]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 <第六 心通性情圖>에 수록된 上圖, 中圖, 下圖 3개의 圖를 기본으로 하여 權春蘭이 上圖와 下圖 2개의 圖로 재편한 것인데, 『聖學十圖』에 수록된 上圖는 원래 程復心이 그린 것이며, 中圖와 下圖는 退溪가 그린 것이다. 圖說은 ① 言性情之包於心 ② 言心之統性情兼理氣 등 2篇으로 대별하고, ① 篇은 程子의 說을, ② 篇은 孟子・中庸・大學 등에 수록된 원문을 인용하고,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다. 所引은 林隱 程復心의 설을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크게 上圖, 下圖, 結論 부분으로 구분하여, 上圖는 權春蘭이 성현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心은 一身의 주제가 되어 만물이 화생하는 근본임을 밝히고, 下圖는 孟子・張子・朱子・中庸・大學 등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여 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과 仁・義・禮・智, 喜・怒・哀・樂, 忿懥・恐懼・好樂・憂患 등을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中庸・大學・張子 등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여 '心統性情'에 대한 權春蘭의 자설을 수록하였다.

---

27) 『進學圖』 卷1, 9張(左2行). "此論性有天地氣質之殊而其本則一也."
28) 『進學圖』 卷1, 14張(右2行). "此論心爲一身之主而兼統性情."

www.kci.go.kr

4) 第四 張子西銘圖

모든 이치는 하나이지만 서로 나뉘고 달라져 仁을 행하는 術과 義가 그 가운데 있음을 밝힌 것[29]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 <第二 西銘圖>에 수록된 上圖, 下圖 2개의 圖를 權春蘭이 간략히 재편한 것으로, <西銘圖>는 원래 元의 程復心이 그린 것이다. 圖說은 張載의 『西銘』 原文을 ① 明理一, ② 言分殊, ③ 사람이 천지의 자식임을 밝힌 前一節[30], ④ 공부에 대해서 언급한 做工夫處[31], ⑤ 사람이 천지 섬기기를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이 해야 함을 밝힌 後一節[32], ⑥ 살아 있는 동안에(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죽어서 나는 편안할 것이다[33]라는 總結 등 총 6篇으로 대별하여 原文을 싣고, 그 아래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는데, 원문은 胡廣 등이 편찬한 『性理大全書』 卷4에 수록되어 있다. 所引은 西銘에 관한 朱子의 설을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朱子・勉齋 黃氏・程子 등의 說을 인용하여 쓴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5) 第五 東銘戱過圖

의도가 있는 악은 크고, 의도가 없는 허물은 적지만, 이것을 가리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됨을 밝힌 것[34]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張載의 <東銘>은 <西銘>과 함께 좌우명을 이루며, 본래 제명이 <砭愚>인데 고쳐서 <東銘>[35]이라 하였다. 圖는 圖說을 참고하여 權春蘭이 도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圖說은 ① 言戱言戱動 ② 言過言過動 ③ 總論 ④ 總結上文之意 등 4편으로 대별하여 張載가 지은 圖說의 원문을 수록하고, 각각의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29) 『進學圖』 卷1, 18張(左2行). "此明理一而分殊以廣爲仁之術而義枉於其中."
30) 『進學圖』 卷1, 19張(左8行). "前一節明人爲天地之子."
31) 『進學圖』 卷1, 20張(右3行). "此以下是做工夫處."
32) 『進學圖』 卷1, 21張(左8行). "後一節明人事天地當如子之事父母."
33) 『進學圖』 卷1, 21張(左9-10行)~22張(右1-3行). "存吾順事歿吾寧也 … 此總結一篇之大意."
34) 『進學圖』 卷1, 25張(左2-3行). "此言有心之惡大無心之過小於此不擇焉得智也."
35) 『進學圖』 卷1, 27張(右2行). "右張子初名砭愚改以東名者也."

www.kci.go.kr

說明註를 부기하였는데, 원문은 胡廣 등이 편찬한 『性理大全書』 卷70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朱子의 설을 인용한 所引과 易・詩・中庸을 인용하여 權春蘭의 생각을 기술한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6) 第六 四勿箴圖

'四勿箴'은 視箴, 聽箴, 言箴, 動箴을 가리키는데, 宋의 程頤가 "안연이 극기복례의 조목을 묻자,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않으며, 예가 아니면 듣지 않으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며,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36]를 보고, 자신을 경계하기 위하여 지은 것[37]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程頤가 지은 '四箴'을 참고하여 權春蘭이 도상화한 것이며, 圖說은 ① 戒愼以存養防其自外入而動於內也 ② 謹獨以硏幾謹其自內出而接於外也 등 2편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수록하고, 각각의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고 있는데, 程頤가 지은 <四箴>의 원문은 모두 『二程全書』 卷62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所引은 朱子의 설을, 附說은 『論語』 <顔淵>篇의 仁에 대한 顔淵과 孔子의 問答 내용과 朱子・孟子 등의 說을 인용하여 '四勿箴'에 대한 權春蘭의 자설을 수록하였다.

7) 第七 克己銘圖

자기의 사사로움을 힘써 이겨내면 하늘의 이치를 온전히 하여 인을 행하는 공효를 얻게 됨을 말한 것[38]으로, 孔子가 顔淵에게 극기복례가 인이 됨을 말씀하셨으니, 藍田 呂氏[39]가 그 말씀 가운데 '克己' 2字를 취하여 제목을 삼은 것이다.[40] 체제는 圖, 圖說,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呂大臨이 지은 <克己銘>

36) 『論語集註』 <顔淵>篇. "顔淵曰請問其目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37) 『進學圖』 卷1, 29張(右2-7行). "此言爲仁當自謹其視聽言動而非禮則勿勿 程子曰顔淵曰請問其目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 因箴以自警."
38) 『進學圖』 卷1, 34張(左2-3行). "此言能克己之私則得全天之理而爲仁之功蓋不有餘力矣."
39) 宋의 학자이며 사상가인 呂大臨.
40) 『進學圖』, 卷1, 37張(右7-8行). "右孔子告顔淵曰克己復禮爲仁藍田呂氏就其語以克己二字爲題作是銘 …."

www.kci.go.kr

을 참고하여 權春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圖說은 <克己銘>을 ① 言人生本同一理 ② 言有己 ③ 言克己 ④ 言未克之害 ⑤ 言旣克之效 ⑥ 言物我一體與起句相應 ⑦ 總言爲仁 등 총 7篇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그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는데, <克己銘> 원문은 모두 『性理大全書』 卷70에 수록되어 있다. 附說은 藍田 呂氏가 題名을 취한 과정 및 <克己銘>에 대한 權春蘭의 자설을 수록하였다.

8) 第八 白鹿洞學規圖

<白鹿洞學規>는 朱熹가 白鹿洞 書院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규범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 <第五 白鹿洞規圖>와 거의 동일한데, <白鹿洞學規圖>는 退溪가 朱熹의 <白鹿洞學規>를 보고, 이를 도상화한 것이다. 圖說은 朱熹의 <白鹿洞規> 原文을 ① 五敎之目 ② 爲學之序 ③ 修身之要 ④ 處事之要 ⑤ 接物之要 등 5篇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각 原文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으며, 所引은 朱熹의 <白鹿洞規後敍>를 일부 채록하여 수록하였는데, 원문은 모두 朱熹의 『朱子大全』 卷74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附說은 <白鹿洞學規>의 유래와 위의 5篇에 대한 權春蘭의 자설을 7面에 걸쳐 수록하였다.

9) 第九 敬齋箴圖

<敬齋箴>[41]은 朱熹가 張敬夫의 <主一箴>을 읽고 그 남은 뜻을 주워 모아 쓴 <敬齋箴>이라는 글에 王柏(1197-1274)이 圖象化한 것[42]으로, 心을 중심에 두고 敬을 실천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체제는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 <第九 敬齋箴圖>와 거의 동일하다. 圖說은 朱熹의 <敬齋箴>을 ① 靜時敬 ② 動時敬 등 10章으로 대별하여 原文을 싣고, 각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설명 註를

41) 원문은 『朱子全書』 85卷과 『性理大全』 70卷, 그리고 『心經附註』 末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42) 『進學圖』 卷1, 51張(左8-10行)~52張(右1行). "右箴題下朱子自敍曰讀張敬夫主一箴掇其遺意作敬齋箴書齋壁以自警云 … 而金華王魯齋排列地頭作此圖明白整齋 …."

www.kci.go.kr

부기하였는데, 특히 圖說의 첫 부분에는 權春蘭의 자설과 함께 <敬齋箴>의 체제를 밝힌 臨川 吳氏의 글[43]을 수록하였다. 所引은 西山 眞氏[44]의 설을 간단히 인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附說은 退溪의 『聖學十圖』 <第九 敬齋箴圖>에 수록된 附說을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朱子을 설을 인용한 權春蘭의 자설을 부기하였다.

10) 第十 夙興夜寐箴圖

경을 중심에 두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다.[45] <夙興夜寐箴>은 원래 南塘 陳柏[46]이 지어 스스로 경계를 삼은 것으로, 退溪가 魯齋(王柏)의 <敬齋箴圖>를 모방하여 <夙興夜寐箴圖>를 그려 <敬齋箴圖>와 상대하게 한 것이다.[47] 圖, 圖說, 附說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 <第十 夙興夜寐箴圖>와 거의 동일하다. 圖說은 陳茂卿의 <夙興夜寐箴>을 ① 夙寤 ② 晨興 ③ 讀書 ④ 應事 ⑤ 日乾 ⑥ 夕陽 ⑦ 夙夜總結一篇 등 7篇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각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설명을 註로 부기하였다. 附說은 退溪의 『聖學十圖』 <第十 夙興夜寐箴圖>에 수록된 附說을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權春蘭의 自說을 추가하였다.

11) 第十一 小學內外篇目圖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규범인 五倫을 비롯한 유학의 실천 규범을 다루고 있는 『小學』은 朱熹가 저술한 『小學』의 목차에 의거하여 退溪가 圖象化한 것[48]

---

43) 『進學圖』 卷1, 47張(左5-9行). "臨川吳氏曰箴法十章章四句一言靜無違 … 十總結一篇."
44) 南宋의 眞德秀(1178-1235)의 자는 景元, 호는 西山이며, 『心經附註』와 『大學衍義』를 저술하였다.
45) 이황 저,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한국고전총서3(서울: 홍익출판사, 2004), 105.
46) 자는 茂卿, 호는 南塘이다.
47) 『進學圖』 卷1, 62張(右1-4行). "右箴南塘陳茂卿(柏)所作以自警者 … 某今謹倣魯齋敬齋箴圖作此圖以與彼圖相對."
48)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 "右小學古無圖臣謹依本書目錄爲此圖."

www.kci.go.kr

이다.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 <第三 小學圖>와 거의 동일하다. 圖說은 크게 小學篇目과 小學題辭, 小學書題로 대별하였는데, 모두 朱熹의 『小學』 가운데 小學篇目과 小學題辭, 小學書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所引은 朱熹의 『大學』 해설서인 『大學或文』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附說은 6篇의 小學篇目과 小學의 중요성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이 수록되어 있다.

12) 第十二 大學誠正序功之圖

誠意와 正心은 곧 군자가 스스로 닦는 것이요, 그 요체는 謹獨에 있으니 그 순서와 공효를 어지럽히거나 빠뜨려서는 안 됨을 설명한 것[49]으로, 원래 '誠正'은 朱熹가 『大學』에서 적출한 八條目 가운데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뜻을 먼저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50]는 '正心'과 '誠意'을 합쳐 한 개로 만든 것[51]이다.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참고하여 도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圖說은 ① 言知不至則意不誠 ② 言知至後又不可不誠意 ③ 言誠意然後能正心 ④ 言旣誠意又須正心 등 4篇으로 대별하여 原文과 註를 附記하였는데, 모두 朱熹의 『大學章句大全』의 大文과 註를 그대로 인용하고, 여기에 權春蘭의 說明을 細註로 부기하였다. 所引 또한 『大學章句大全』의 大文을 인용하고, 여기에 權春蘭의 說明註를 부기하였으며, 附說은 誠意와 正心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13) 第十三 中庸中和位育之圖

性·情·體·用의 공업과 교화를 지극히 하는 것이니,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사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그 요체가 다만 몸을 삼가는데 있음[52]을

49) 『進學圖』 卷2, 9張(左2-3行). "此言誠意正心乃君子自修之先務其要只在謹獨而其序不可亂其功不可闕者也."
50) 『大學章句大全』. "欲正其心者先誠其意."
51) 『進學圖』 卷2, 12張(左8行). "右誠意正心合爲一圖."
52) 『進學圖』 卷2, 16張(左2-3行). "此言性情體用功化之極蓋欲學者遏人欲存天理其要只在

www.kci.go.kr

설명한 것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이루어져 있다.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참고하여 도상화한 것으로 보이며, 圖說은 ① 道之體 ② 存養之事 ③ 省察之事 ④ 性之體 ⑤ 情之用 ⑥ 致中和之功也 ⑦ 學問之極功聖人之能事 등 7편으로 대별하여 原文과 註를 부기하였는데, 모두 朱熹의 『中庸章句大全』의 大文과 註를 인용하고, 여기에 權春蘭의 설명을 細註로 부기하였다. 所引 또한 朱熹의 『中庸章句大全』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權春蘭의 自說로 편성되어 있다.

14) 第十四 論語言仁之圖

사람으로서 仁하지 못하면 가히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仁에 뜻을 두어야 함을 설명한 것[53]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이루어져 있다. 圖는 圖說을 기초로 權春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圖說은 ① 總說仁之體用, ② 一截 爲仁, 鮮仁, 近仁 ③ 二截 親仁, 處仁, 輔仁, 友仁 ④ 三截 仁道至大 ⑤ 四截 爲仁之道 ⑥ 五截 成仁之事 ⑦ 六截 子路顔淵孔子之仁 등 7篇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註를 부기하였는바, ①편은 退溪의 『聖學十圖』 <第七 仁說圖>에 수록된 朱子의 <仁說>[54] 가운데 첫 번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②~⑦편은 『論語』의 學而, 爲政, 里仁, 公冶長, 雍也, 顔淵, 子路, 憲問, 衛靈公, 陽貨, 微子 등의 篇에서 仁에 관한 대문을 추출하여 원문을 싣고, 각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說明을 註로 부기한 것이다. 그리고 所引은 『聖學十圖』 <第七 仁說圖>의 朱子의 <仁說> 가운데 두 번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仁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15) 第十五 孟子不動心之圖

'不動心'은 『孟子』 <公孫丑>章의 "맹자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40세에 부동심을 하였노라"[55]에 나오는 말로, 본 편의 내용은 부동심의 도는 지언과 양기

謹獨."

53) 『進學圖』 卷2, 24張(左2-3行). "此言人而不仁不可以爲人矣故君子必志於仁."

54) 朱子의 <仁說>은 『朱子大全』 卷67 <雜著> 20-22張에 수록되어 있다.

55) 『孟子』 <公孫丑>章. "孟子曰否我四十不動心."

www.kci.go.kr

로써 주를 삼아 집의하는 것이 곧 그 절도이니 제자들은 각각 그 한쪽을 얻어 공부하면 맹자를 집대성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56] 체제는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기초로 도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圖說은 ① 總論不動心之事 ② 論浩然之氣 ③ 論知言 ④ 言孔子之聖 등 4篇으로 대별하여 原文을 싣고, 각 원문 아래에 權春蘭의 설명을 註로 부기하였는데, 原文은 모두 朱熹의 『孟子集註』 <公孫丑>章에 수록된 大文 일부를 추출하여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所引은 雲峯胡氏의 說을, 附說은 聖賢들의 글을 인용한 權春蘭의 自說로 편성되어 있다.

16) 第十六 詩風雅頌正變之圖

風·雅·頌은 詩의 六義說 가운데 시의 體制를 언급한 것으로, 風은 15개 國別로 나누어 읊은 民間歌謠이며, 雅는 王政의 흥폐를 왕실, 공경대부가 지은 것이며, 頌은 成德을 찬미하여 그 공을 神明에게 고할 때의 노래이다.[57] 그리고 王道의 興廢에 따라 태평시대의 시를 正, 衰亂한 때의 시를 變이라 하는데, 風과 雅에 대해서만 正風, 正雅, 變風, 變雅로 분류하여 風에서 周南·召南의 시는 正風, 邶이하는 모두 變風으로, 또 雅에서도 小雅에서는 鹿鳴에서 菁菁者莪까지는 正小雅로, 그 이하는 모두 變小雅로, 大雅에서는 文王으로부터 卷阿까지는 正大雅로, 그 이하는 모두 變大雅로 보고 있다.[58] 본 내용은 풍속의 미악을 살펴 정치의 득실을 알면 존망흥쇠를 감계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써 풍화의 방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야 변에 이르지 않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59] 체제는 圖, 圖說, 所引, 附說로 이루어져 있는데, 圖는 圖說을 기초로 權春蘭이 작성한 것이다. 圖說은 ① 總敍 ② 正風 ③ 變風 ④

56) 『進學圖』 卷2, 33張(左2-3行). "此言不動心之圖以知言養氣爲主而集義乃其節度也諸子各得其一偏而集大成於夫子."
57) 林東錫 著, 『中國學術綱論』(서울: 고려원, 1991), 68-69.
58) 林東錫(1991), 73.
59) 『進學圖』 卷2, 41張(左2-4行) "此言觀風俗之美惡知政治之得失廢興存凶可監可戒是以操風化之權者當先正其心使不至於變也."

www.kci.go.kr

正小雅 ⑤ 變小雅 ⑥ 正大雅 ⑦ 變大雅 ⑧ 美盛德告神明 등 8편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그 아래에 註를 싣고 부기하였는바, 原文과 註는 모두 朱子의 『詩傳集註』의 내용을 그대로 추출하여 인용한 것이다. 所引 또한 朱子의 『詩傳集註』를 그대로 추출하여 인용하였고, 附說은 詩의 風・雅・頌・正・變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편성되어 있다.

17) 第十七 思無邪之圖

'思無邪'는 『論語』 <爲政篇>의 "시 3백 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60]에 나오는 말로, 본편의 내용은 배우는 자는 평소에 체찰하고 깊이 생각해야 생각하는 것이 모두 바름에서 나오게 되어 천리가 유행됨을 설명한 것이다.[61] 체제는 圖, 圖說,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기초로 도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圖說은 ① 言詩之善者正也 ② 言詩之惡者變也 ③ 言欲其思皆出於正也 ④ 言詩之所以爲教者也 등 3편으로 대별하여 원문을 싣고, 그 아래 註를 부기하였는데, ①편은 『詩經』 <魯頌> 駉篇과 『論語』 <爲政篇>에서 각각 1개의 大文을 인용하고, 여기에 孔子・朱子의 설 및 權春蘭의 설명을 註로 부기하였으며, ②부터 ④편까지는 인용된 문헌은 알 수 없지만, 安城劉氏・蘇氏・朱子 등의 설을 註 형식으로 부기하였다. 附說은 思無邪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18) 第十八 書典謨訓誥敍次圖

『書典』은 虞, 夏, 商, 周의 帝王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을 기록한 책으로, 본 내용은 堯・舜・禹・湯・文・武・周公의 마음은 『書典』으로 인하여 訓誥 또한 그 指意의 대략을 얻을 수 있음[62]을 설명한 것이다. 체제는 圖, 圖說, 附說로

60) 『論語』 <爲政篇>. "子曰詩三百一言而蔽之曰思無邪."
61) 『進學圖』 卷2, 60張(左2-3行) "此言學者誠能體察而審於念慮之間必使無所思而不出於正則日用云爲莫非天理之遺行矣."
62) 『進學圖』 卷3, 2張(左2-4行). "武夷蔡氏曰四代之書文以時異治以道同聖人之心見於書 … 堯舜禹湯文武周公之心因是訓誥亦可得其指意之大略矣."

www.kci.go.kr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기초로 도상화한 것이다. 圖說은 ① 虞書 ② 夏書 ③ 商書 ④ 周書 등으로 대별하고, ① 虞書는 堯典, 舜典 등 5篇, ② 夏書는 禹貢, 甘誓 등 4篇, ③ 商書는 湯誓, 仲虺之誥 등 17篇 ④ 周書는 泰誓, 牧誓 등 32篇으로 세분하여 原文과 註를 병기하였는바, 原文과 註는 모두 蔡沈이 集傳한 『書傳集註』의 내용을 그대로 초략한 것이다. 그리고 각 篇의 하단에는 "今文無古文有" 또는 "今文古文皆有" 등으로 今·古文의 有無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權春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所引 또한 蔡沈의 『書傳集註』를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圖說에서 다룬 『書傳』의 내용에 대해 權春蘭의 자설을 수록하였다.

19) 第十九 人心道心圖

'人心道心'은 堯, 舜, 禹 임금이 차례로 전한 심법[63]으로 『書經』 <大禹謨>에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일하여야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64]는 구절에서 연원한다. 본 내용은 人心과 道心은 모두 나의 한 마음이며, 그 쓰임의 행한 바는 선악과 과불급의 폐단이 없지 않을 수 없지만, 군자는 반드시 精一의 공부를 힘써야 함을 설명한 것이다.[65] 체제는 圖, 圖說, 所引, 附說로 이루어져 있는데,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기초로 도상화한 것이다. 圖說은 ① 論人心道心 ② 論惟精惟一 등 두 부분으로 대별하고, ①편은 『論語』 <堯曰篇>과 朱熹의 『中庸章句』 <序文>에 수록된 原文을 인용하고, 각 원문의 아래에 朱子, 程子, 勉齋 黃氏, 東陽 許氏의 설을 註로 병기하였으며, ②편은 '精'과 '一'에 대한 朱子, 勉齋 黃氏 등의 설을 부기하였는데, 朱子의 說은 모두 『中庸章句』 <序文>에 수록된 글을 초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所引 또한 주희의 『中庸章句』 <序文>에 글을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人心道心에 대한 權春蘭의 자설을 수록하였다.

63) 『進學圖』 卷3, 45張(左1行). "右人心道心乃堯舜禹相授心法也."
64)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65) 『進學圖』 卷3, 43張(左2-4行). "此言人心道心皆吾之一心而其用之所行不能無善惡過不及之弊君子必加精一之功以涘擇焉."

www.kci.go.kr

20) 第二十 丹書敬義之圖

「丹書」는 周나라의 武王이 즉위한 처음에 太師 太公望이 전해 준 글로, 太公望의 「丹書」에 대해 武王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寢席의 四面을 비롯, 책상(几), 거울(鑑) 등 모두 13곳에 銘을 새겨 스스로 경계를 삼은 것이다[66] 체제는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圖說을 기초로 權春蘭이 작성한 것이다. 圖說은 ① 太公道丹書之言告武王 ② 武王銘 등 2편으로 대별하여 原文을 싣고, 각 원문 아래 西山 眞氏의 설과 함께 權春蘭의 설명을 註로 부기하였는데, 圖說에 인용된 「丹書」의 原文은 모두 「大戴禮記」 <武王踐阼篇>에 수록되어 있다. 所引은 「丹書」와 13개의 銘에 대한 西山 眞氏와 朱子의 설을 인용하였고, 附說은 丹書敬義에 관한 權春蘭의 자설로 이루어져 있다.

21) 第二十一 毋不敬之圖

'毋不敬'은 「禮記」 <曲禮>의 首篇에 "불경함이 없어 엄숙히 생각하는 듯이 하며 말을 안정되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67]에 나오는 말로, 본 내용은 군자가 수신할 때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등 세 가지를 禮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68] 체제는 圖, 圖說, 附說로 이루어져 있는데, 圖는 圖說을 기초로 權春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圖說은 首篇에 「禮記」 <曲禮> 首篇의 글을 인용하고, ① 總言毋不敬 ② 言靜時敬 ③ 言動時敬 ④ 言安民 등의 4편으로 대별하여, 范氏・劉氏・朱子・西山眞氏・程子・上蔡 謝氏[69] 등의 說을 註 형식으로 集하였다. 附說은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등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

66) 「進學圖」 卷3, 47張(左4-7行) "王聞書之言惕若恐懼而爲戒書於席之四端於几於鑑於盥槃於楹於杖於帶於履屨於觴豆戶牖劍弓矛爲銘焉."

67) 「禮記」 <曲禮>. "曲禮曰毋不敬儼若思安定辭安民哉."

68) 「進學圖」 卷3, 55張(左2-3行). "曲禮曰毋不敬儼若思安定辭安民哉(君子修身其要在此三者乃禮之本也)."

69) 上蔡人으로 북송의 유학자이며, 자는 顯道, 程子의 수제자이다.

www.kci.go.kr

22) 第二十二 易學入門括例之圖

초학자가 역학에 입문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 것[70]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圖說을 기초로 權春蘭이 도상화한 것이며, 圖說은 ① 乾 ② 坤 ③ 孔子十翼 등 3편으로 대별하여 原文과 原註를 싣고, 그 아래에 가끔씩 權春蘭의 說明을 註記하였는데, 原文과 原註는 모두 朱熹가 撰한 『周易傳義大全』의 내용을 초략하여 정리한 것이다. 所引 또한 朱熹의 『周易傳義大全』 내용을 초략하였으며, 附說은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23) 第二十三 四聖易學之圖

<四聖易學>은 앞의 <易學入門括例之圖>와 같이 朱熹의 『周易傳義大全』에서 伏羲氏의 八卦, 文王의 彖辭, 周公의 爻辭, 孔子의 彖辭·卦象·爻辭·文言 등의 내용을 그대로 초략한 것으로, 圖, 圖說,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바탕으로 도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圖說은 ① 伏羲所畫八卦 ② 文王所繫之辭 ③ 周公所繫之辭 ④ 孔子釋彖辭(彖傳)·解卦象(大象)·釋卦辭(所象)·叀設文言 등으로 대별하여 朱熹의 『周易傳義大全』의 내용을 초략, 정리하였고, 附說은 權春蘭의 자설로 이루어져 있다.

24) 第二十四 春秋經世之圖

『春秋』는 孔子가 편찬한 魯나라의 역사서로, 본편은 圖, 圖說, 所引, 附說의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權春蘭이 圖說을 기초로 도상화한 것이며, 圖說은 『春秋胡氏傳』의 <序文>을 채록하여 수편에 배치한 다음 ① 隱公 ② 哀公 ③ 自隱至哀凡二百四十二年 등 3편으로 대별하여 원문과 주를 병기하였는데, 모두 宋의 胡安國(1074~1138)이 傳을 단 『春秋胡氏傳』을 원문과 주를 그대로 초략한 것이다. 附說은 『春秋』에 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

70) 『進學圖』 卷4, 3張(左2-43行). "乾坤爲易之門初學者必自此始入則萬戶千門將次第開也故特揭此二卦爲六十四卦之括例云."

www.kci.go.kr

25) 第二十五 聖賢道通傳緖之圖

본 내용은 聖賢들의 道統이 전승된 계보를 언급한 것으로,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다. 圖는 權春蘭이 도설을 기초로 도상화한 것이며, 圖說은 伏羲氏로부터 「春秋胡氏傳」을 지은 胡安國에 이르기까지 27명의 聖賢들이 道統을 전승한 계보를 그들이 이루어 놓은 대표적인 업적을 사례로 들어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所引은 성현들이 垂世立敎를 서로 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圖說과 所引은 모두 朱熹의 사위이자 嫡統인 黃幹의 「勉齋集」[71]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附說은 圖說에서 다룬 27명의 聖賢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다.

26) 第二十六 呂氏鄕約圖

<呂氏鄕約>은 1076년 산시성(陝西城)의 학자인 呂大鈞・大忠・大防・大臨 4형제가 향약을 조직하고 그 규약을 기술한 것으로, 朱熹가 내용을 수정하여 「朱子增損呂氏鄕約」을 완성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中宗 13년(1518)에 金安國이 이를 諺解하여 「여씨향약언해」를 간행한 바 있다.[72] 체제는 圖, 圖說, 所引, 附說로 편성되어 있는데, 圖는 權春蘭이 도설을 기본으로 하여 도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圖說은 ① 德業相勸 ② 過失相規 ③ 禮俗相交 ④ 患難相恤 등 4篇으로 대별하고 朱熹의 「朱子增損呂氏鄕約」에서 모두 細註를 생략하고 綱目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所引 또한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그대로 전재하였으며, 附說은 鄕約 4條에 대한 權春蘭의 자설을 수록하였다.

이상과 같이 「進學圖」의 26개 圖에 대하여 圖, 圖說, 所引, 附說 등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圖象者, 圖說者,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할 때 참고하였던 문헌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6개 圖의 圖象者를 살펴본 결과, <第二 論性理氣圖><第五 東銘戱過

71) 「勉齋集」(影印)文淵閣四庫全書 卷1168(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1168(37-38行).
72)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5a2963a>.

www.kci.go.kr

圖> 등 19개 圖는 權春蘭이 직접 도상화한 것으로 보이며,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第三 心統性情之圖> 등 7개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에 수록된 圖를 참고하여 權春蘭이 간략히 재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圖說과 所引은 論語, 大戴禮記, 大學, 大學章句大全, 大學或文, 孟子, 孟子集註, 勉齋集, 書傳集註,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聖學十圖, 小學, 詩經, 詩傳集註, 禮記, 二程全書, 周易傳義大全, 朱子大全, 朱子全書, 朱子增損呂氏鄕約, 中庸, 中庸章句, 中庸章句大全, 春秋胡氏傳 등의 문헌에 수록된 大文과 註를 權春蘭이 각각의 篇으로 대별하여 인용하고,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權春蘭의 說明을 註의 형식으로 附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附說은 <第三 心統性情之圖>와 같이 7개 圖의 附說은 孟子, 朱子, 程子 등 聖賢들의 說을 인용하여 圖說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進學圖』의 전체 편성체제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安復駿이 쓴 『進學圖』의 <序文>에 의하면, <太極統體人事圖>로 첫편을 삼고, <性理氣圖>와 <心統性情之圖>로 性・氣・心・情을 밝히며, <張子西銘圖>・<東銘戱過圖>・<四勿箴圖>・<克己銘圖>・<白鹿洞學規圖>・<敬齋箴圖>・<夙興夜寐箴圖>・<小學內外篇目圖> 등으로 공부의 先後를 밝히고, <中庸>・<大學>・<論語>・<孟子>・<詩經>・<書經>・<周易>・<春秋>・<丹書> 등의 圖로 옛 성인들이 후학을 가르치는 큰 교훈을 밝히며, <思無邪>・<人心道心>・<無不敬> 등의 圖는 本書의 아래에 부기하였으며, <聖賢道通傳緖之圖>로서 篇末을 삼았다[73]라고 하였다. 따라서 『進學圖』의 편성 체제와 내용은 ① 우주 생성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宇宙論, ② 性・氣・心・情 등 인간의 심성을 밝힌 心性論, ③ 仁과 經을 중심에 두고 초학자들이 학문하는

73) 『進學圖』 <晦谷先生進學圖序> 卷1, 2張(右5行-左5行). "旣以太極統體人事圖首之而繼以性理氣及心統性情等圖明之又次之以東西銘四勿克己白鹿洞學規敬齋箴夙興夜寐箴小學內外篇目等圖明其用工之先後復以庸學論孟詩書易春秋丹書爲圖以明古聖人指敎後學之大訓如思無邪人心道心毋不敬等圖則各附於所出本書之下卒以聖賢道通傳緖之圖爲篇末之歸."

www.kci.go.kr

자세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을 다룬 工夫先後論, ④ 聖人들이 남겨 놓은 경전의 독서법을 밝힌 聖人敎訓論, ⑤ 초학자들로 하여금 성현의 발자취를 뒤따르도록 하며, 아울러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편성한 其他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머리에 우주의 생성 원리인 <第一 太極通體人事圖>를 배치하여 南宋의 周熹와 呂祖謙이 공동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인 『近思錄』과 退溪의 『聖學十圖』에서 <太極圖>를 첫머리에 두는 학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아래 <표 1>로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進學圖」의 體制와 各 圖의 圖象者 및 圖說者

區分	圖名	圖	圖說	所引	附說	參考文獻
宇宙論	第一太極通體人事圖	周敦頤 權春蘭	周敦頤 權春蘭	朱熹	權春蘭	性理大全 聖學十圖
心性論	第二論性理氣圖	權春蘭	孟子, 荀子, 楊子, 張載, 程復心, 朱熹, 韓子, 黃幹, 權春蘭	程復心 黃幹	權春蘭	
	第三心統性情之圖	李滉 程復心 權春蘭	大學, 孟子, 程復心, 中庸, 權春蘭	程復心	大學, 孟子, 張子, 朱熹, 中庸, 權春蘭	大學, 孟子, 聖學十圖, 中庸
工夫先後論	第四張子西銘圖	程復心 權春蘭	張載, 權春蘭	朱熹	程復心, 朱熹, 黃幹, 權春蘭	性理大全書 聖學十圖
	第五東銘戲過圖	權春蘭	張載, 權春蘭	朱熹	詩, 易, 中庸, 權春蘭	性理大全書
	第六四勿箴圖	權春蘭	程頤	朱熹	論語, 孟子, 朱熹, 權春蘭	二程全書
	第七克己銘圖	權春蘭	呂大臨		呂大臨 權春蘭	性理大全書
	第八白鹿洞學規圖	李滉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聖學十圖 朱子大全
	第九敬齋箴圖	王柏 權春蘭	呂大臨, 朱熹, 權春蘭	眞德秀 權春蘭	朱熹 權春蘭	聖學十圖, 心經附註, 朱子全書
	第十夙興夜寐箴圖	李滉 權春蘭	陳伯, 權春蘭		李滉 權春蘭	聖學十圖
	第十一小學內外篇目圖	李滉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大學或文, 小學, 聖學十圖
聖人敎訓論	第十二大學誠正序功之圖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權春蘭	大學章句大全
	第十三中庸中和位育之圖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中庸章句大全

www.kci.go.kr

區分	圖名	圖	圖說	所引	附說	參考文獻
	第十四論語言仁之圖	權春蘭	論語,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論語, 聖學十圖, 朱子大全
	第十五孟子不動心之圖	權春蘭	朱熹, 權春蘭	雲峯胡氏	權春蘭	孟子集註
	第十六詩風雅頌正變之圖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詩傳集註
	第十七思無邪之圖	權春蘭	孔子, 論語, 蘇氏, 詩經, 安城劉氏, 朱熹, 權春蘭		權春蘭	論語, 詩經
	第十八書典謨訓誥敍次圖	權春蘭	蔡沈, 權春蘭	蔡沈	權春蘭	書傳集註
	第十九人心道心圖	權春蘭	論語, 東陽許氏, 程復心, 朱熹, 黃幹, 權春蘭	朱熹	權春蘭	論語 中庸章句
	第二十丹書敬義之圖	權春蘭	眞德秀, 太公望, 權春蘭	朱熹 眞德秀	權春蘭	大戴禮記
	第二十一毋不敬之圖	權春蘭	范氏, 上蔡謝氏, 禮記, 劉氏, 程復心, 朱熹, 眞德秀, 權春蘭		權春蘭	禮記
	第二十二 易學入門括例之圖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周易傳義大全
	第二十三四聖易學之圖	權春蘭	朱熹, 權春蘭		權春蘭	周易傳義大全
	第二十四春秋經世之圖	權春蘭	胡安國, 權春蘭	胡安國	權春蘭	春秋胡氏傳
其他	第二十五聖賢道通傳緖之圖	權春蘭	黃幹, 權春蘭	黃幹	權春蘭	勉齋集
	第二十六呂氏鄕約圖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熹	權春蘭	朱子增損呂氏鄕約

5. 結 論

지금까지 權春蘭이 저술한 「進學圖」와 관련하여 저자의 生涯, 「進學圖」의 편찬 동기와 1778년 목판본으로 출판되기까지의 간행 배경, 「進學圖」의 서지적 특징 및 전체적인 편성 체제, 그리고 26개 圖의 내용과 圖像者, 圖說者,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할 때 참고하였던 문헌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權春蘭의 생애를 살펴본 결과, 주요 활동기를 3期로 대별해 볼 수 있었는데, 제1기는 1539년 태어나 1573년 式年文科에 급제할 때까지 栢潭 具鳳齡과 退溪 李滉을 스승으로 삼아 修學에 열중한 시기, 제2기는 1575년 成均館學諭로부터 관직을 시작하여 1603년 모친을 거상할 때까지 致仕를 거듭하며 內職과 外職을 번갈아하던 仕宦 시기, 제3기는 3년간의 廬墓를 끝낸 후 1605년부터 1617

www.kci.go.kr

년 卒할 때까지 그가 세운 鑑源亭에 거처하면서 六經과 四書, 九流百家에 이르기까지 학문에 전념하면서 「進學圖」 등의 서적을 편찬한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 「進學圖」의 편찬 동기는 退溪의 門人으로서 退溪의 「聖學十圖」를 저술한 정신을 이어 받아, 초학자들이 학문의 도를 깨우치고, 몽매한 후학들이 계급 차제를 닦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찬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1778년 목판본으로 출판되기까지의 간행 배경을 살펴본 결과, 權春蘭 死後에 아우인 權春桂가 판각하여 晦谷의 학문을 널리 알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春桂가 1620년 타계하자 간행사업은 중지되었다. 본격적인 간행 사업은 100여년이 지난 후, 權春蘭의 外孫인 安復駿이 주도하여 간행사업을 재개하게 되는데, 먼저,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던 「進學圖」 草稿本을 金元行(1702-1772)이 산정하여 4冊으로 완성하였다. 다시 金元行에게 「進學圖」의 <序文>을 요청하였으나, 1772년 金元行이 卒하자 1776년 知中樞府事 安復駿이 직접 <序文>을 완성하고, 安明述과 權漸來가 실제로 간행사업을 시작하였지만, 安復駿 또한 완성을 보지 못한 채 1777년 타계하자, 權春蘭의 5代孫 權國觀이 1778년 <跋文>을 써서 「進學圖」의 간행이 완료하게 되었다

넷째, 4卷4冊의 木板本인 「進學圖」는 1776년 安復駿이 쓴 <序文>, <總目>, <各冊 目錄>, <本文>, 1778년 棬國觀이 쓴 <跋文>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책의 서지적 특징은 古書의 目錄 기입에 가장 중요시되는 卷首題가 누락되어 있으며, 卷次 표시는 版心題와 卷尾題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본 논고에서 임의로 명칭을 부여한 <跋文>은 張의 版心에는 '晦谷先生文集卷之二終'이라는 版心題가 수록되어 있는데, 편집상의 誤記로 보이며, <跋文>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6개 圖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26개 圖의 圖像者는 <第二 論性理氣圖><第五 東銘戱過圖> 등 19개 圖는 權春蘭이 직접 도상화한 것으로 보이며, <第一 太極通體人事圖> <第三 心統性情之圖> 등 7개 圖는 退溪의 「聖學十圖」에 수록된 圖를 참고하여 權春蘭이 간략히 재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圖說과 所引은 論語, 大戴禮記, 大學, 大學章句大全, 大學或文, 孟子, 孟子集註, 勉齋集, 書傳集註, 性理大全, 性理大全書, 聖學十圖, 小學, 詩經, 詩傳集註, 禮

www.kci.go.kr

記, 二程全書, 周易傳義大全, 朱子大全, 朱子全書, 朱子增損呂氏鄕約, 中庸, 中庸章句, 中庸章句大全, 春秋胡氏傳 등의 문헌에 수록된 大文과 註를 權春蘭이 각각의 篇으로 대별하여 인용하고, 여기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權春蘭의 說明을 註의 형식으로 附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附說은 <第三 心統性情之圖>와 같이 7개 圖의 附說은 孟子, 朱子, 程子 등 聖賢들의 說을 인용하여 圖說에 대한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權春蘭의 自說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進學圖」의 전체 편성 체제는 ① 우주 생성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宇宙論, ② 性・氣・心・情 등 인간의 심성을 밝힌 心性論, ③ 仁과 經을 중심에 두고 초학자들이 학문하는 자세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 규범을 다룬 工夫先後論, ④ 聖人들이 남겨놓은 경전의 독서법을 밝힌 聖人敎訓論, ⑤ 초학자들로 하여금 성현의 발자취를 뒤따르도록 하며, 아울러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편성한 其他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머리에 우주의 생성 원리인 <第一 太極通體人事圖>를 배치하여 南宋의 周熹와 呂祖謙이 공동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인 「近思錄」과 退溪의 「聖學十圖」에서 <太極圖>를 첫머리에 두는 학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표 1>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古典資料

韓國文集編纂委員會編. 「晦谷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1462. 서울: 景仁文化社, 1995.

「勉齋集」. (影印)文淵閣四庫全書 卷1168.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性理大全書」. (影印)文淵閣四庫全書 卷711.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8.

「論語集註」.

www.kci.go.kr

「論語」.
「大戴禮記」.
「大學章句大全」.
「大學或文」.
「孟子集註」.
「孟子」.
「書經」.
「書傳集註」.
「性理大全」.
「聖學十圖」.
「小學」.
「詩傳集註」.
「禮記」.
「周易傳義大全」.
「朱子全書」.
「朱子增損呂氏鄕約」.
「中庸章句大全」.
「進學圖」.
「春秋胡氏傳」.
「退溪文集」.
「退溪全書」.
「晦庵先生朱文公文集」.

2. 單行本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황 저,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한국고전총서3. 서울: 홍익출판사, 2004.
이황 지음, 최영갑 풀어씀. 「성학십도: 열가지 그림으로 읽는 성리학」. 서울: 도서

www.kci.go.kr

출판 풀빛, 2005.
林東錫 著. 中國學術綱論. 서울: 고려원, 1991.

3. 論文

유권종. “중국 유학의 도설과 의의.”『中國學報』 제53집(2006).
유권종. “『입학도설』과 조선유학도설.”『철학연구』 제21집(2007. 5). 5-39.
유권종. “晦谷 權春蘭의 생애와 학문.”『철학탐구』 제26집(2009. 12). 1-33.
유권종. “유교도상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儒學硏究』 제20집(2009. 12). 301-333.

4. 전자자료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5a2963a>.

www.kci.go.kr

www.kci.go.kr